

김지하, 『남녘땅 벵노래』 (두레, 1985)

인간의 사회적 성화(聖化)

—水雲思想 묵상

생명은 자연적 죽음에 맞서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란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고 살고 죽고, 죽어 다시 다른 생명체로 다른 요소로 전환하는 일체의 자연운동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 죽임과 맞서 있습니다. 즉 인간에 의한 생명파괴와 맞서 있습니다. 참삶은 죽임으로서의 삶과 맞서 있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죽임, 생명파괴에 맞서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의 본성에 돌아가려는 생명운동은 인위적이며 자각적이며 조직적인 것입니다.

생명운동은 인간의 역사적 사회적 생명, 즉 민중생명의 인위적이고 능동적인 자기회복운동 속에서 자각적으로 진행됩니다. 천우주중생의 생명운동이란 현실적으로는 인간의 인위적인 죽임, 즉 억압과 분단과 왜곡, 소모, 파괴, 약탈, 오염, 변질, 멸종 등에 대한 저항을 민중생명의 인위적인 자기회복운동 속에서 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운동은 일체중생의 자아부귀운동이며 현실 역사 안에서는 억압자, 지배자, 약탈자, 파괴자의 인위적인 일체의 죽임에 저항하는 인간을 비롯한 전중생의 조직적인 자기회복운동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전인류역사에서의 생명운동, 특히 민중 주체의 생명운동은 확실하고 탁월한 차원에서의 자기근원에 대한 명백한 자각을 토대로 한 운동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생명의 자기근원에 대한 명백한 자각을 토대로 한 열정적이면서도 통일적인 생명공동체의 창조는 소수의 예언자나 지혜자들끼리의 소집단적인 종교운동이나 아니면 사상운

동이나 혁명운동, 또는 그들의 지도하에 있던 다수 대중의 추종을 요구하는 카리스마적인 기복적(祈福的)인 종교운동, 사상운동, 혁명운동으로만 나타났었고, 그나마 곧 수직적이고 카리스마적인 구조로 말미암아 새로운 억압, 새로운 자기 배신, 새로운 죽임의 세력으로 자기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절대다수의 민중은 아직 스스로 집단적인 자각이 명백하지 않은 채로 그들의 생명의 흐름이 장애에 부딪칠 때마다 민란이나 여러 형태의 반란, 폭동 혹은 혁명 등을 통해 폭발적, 발작적으로 자기생명의 복귀의지를 나타냈을 뿐이며, 생명의 본성을 근원적으로 자각하고 그 자각에 기초하여 민중자신이 집단적이고 창조적인 공동체운동으로, 명백한 <생명의 세계관>에 기초한 협동적인 생존의 확장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해온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비교적 자각된 형태의 민중운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서양 제국주의에 의한 전지구적, 전중생적인 보편적인 죽임, 즉 죽임의 보편화에 저항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민중, 제3세계의 민중이 벌인 여러가지 해방운동에서 엿웁니다. 그리고 그같은 운동은 오늘, 보편적인 죽임, 죽임의 보편화가 절정에, 최악의 상태에 달한 오늘, 제3세계 민중운동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뛰어난 차원에서의 자각적인 전민중운동으로, 전민중적인 생명운동으로는 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우기 전우주중생계적인 생명회복, 근원적 생명으로의 복귀운동으로서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제부터 전개돼야 할 제3세계 민중의 생명운동의 과제, 반드시 관철되고 성취해야 할 과제로서 두드러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의 경우 그것은 특히 중세 이조 봉건체제의 억압과 서양 및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복합적이고 보편적인 죽임, 생명에 대한 그 극단적인 천대와 파괴에 저항하여 민중생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동학운동, 인내천혁명, 즉 인간의 사회적 성화(聖化)의 집단적 실천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전문화, 전문명, 전사회적인 억압과 분단, 기만과 세뇌, 조작, 증오의 촉진, 동족살해, 타민족정복, 끊임없는 전쟁, 전지구적인 공해, 정신 및 인간생활 일반에

있어서의 온갖 형태의 질병, 전생태계의 약탈, 파괴와 고갈 등 다시 말해 전면적인 인간파괴, 생명파괴, 중생파괴가 절정에 달한 보편적인 죽임에 맞서 민중이 참다운 생명해방운동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결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중주체의 생명운동은 민중자신이 민중자신을 스스로 인식하고 민중자신이 민중자신을 스스로 해방하는 민중생명의 진정한 자기회복, 창조적인 주체회복운동입니다. 그것은 또한 전중생계의 평화와 친교의 고향인 근원적인 생명의 본성으로 활동적인 생명의 본성으로 인위적으로 복귀하는 운동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후천개벽(後天開闢)운동인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역사, 이른바 선천시대(先天時代)의 역사는 온갖 상극과 상호증오와 원한, 상호살륙, 상호말살과 극대화된 분별지(分別智), 극단적인 분열과 대립, 항쟁, 투쟁, 온갖 형태의 무자비한 살인적인 분단과 억압, 약탈, 독점과 기만과 세뇌가 지배하는 역사였으며 한마디로 죽임이 지배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배 밑에서도 민중이 근원적인 자기의 생명 주체으로 역동적, 창조적으로 돌아가려는 잠재적인 후천개벽운동의 물줄기가 민중의 집단적인 삶 속에 숨은 채 드러나고 드러나는 채 숨겨지는 형태로 계속 출몰하면서 모든 문화창조와 문명건설의 실질적인 원동력으로, 일체 역사적 격동의 실질적인 배력(背力)으로 작용하면서도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잠복해 왔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중은 수천 년에 걸쳐 동일한 집단적 생명주체가 꿈꾸어 온 바로 이 운동의 지속적이고 확장적인 실천, 명백히 자각적인 실천을 통해서 민중자신과 전중생의 해방, 민족통일과 전인류 및 전생명계의 보편적인 생존의 통일을 제3세계 민중과의 공고한 연대 속에서 성취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민중의 참된 자유와 민주, 평등과 화해, 민중 주체에 의한 민족통일과 제3세계 중심의 새로운 세계문화 및 새로운 세계문명 건설, 그리고 나아가 전우주생명의 보편적인 평화와 친교 및 화해의 성취 등은 모두 다 생명운동 안에 수렴되어야 하며 이 천해빠진 생명, 짓밟히고 파괴되고 죽임당하는 인간생명, 민중생명의 사회적 성화(社會的聖化) 즉 인내천(人乃天)운동으로부터 출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 역사 안에서 전민중생명의 회복운동 즉 활인(活人) 운동을 통한 우주중생의 자기 복귀, 주체 회복의 시작을 동학운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동학운동은 서기 1860년 수운 최제우(崔濟愚) 선생의 생명의 실상에 대한 큰 깨달음과 민중생명의 자기복귀를 위한 민중 자신의 자각적이고 인위적인 조직·실천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학의 민중적인 생명의 세계관은 제일 먼저 영성(靈性)공동체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어 생활공동체로, 그리고 결국은 소외와 억압과, 약탈, 분단과 파괴라는 죽임의 세력에 저항하는 혁명적 후천개벽운동으로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동학의 민중적 생명의 세계관은 그 경전(經典)인 『동경대전』(東經大全)에 확고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동경대전 전체의 내용은 21자로 되어 있는 주문(呪文) 속에 압축되어 있으며 이것은 다시 본주문 13자 속에 압축됩니다.

동학은 우리 민족 특유의 민중적인 생명사상을 확고한 중심으로 하여 그 기초 위에서 유교, 불교, 노장(老莊)사상과 도교와 기독교 등 제 사상의 핵심적인 생명사상을 통일하되, 특히 민중적인 생명사상, 민중적인 유교, 민중적 불교, 민중적 도교와 민중적 차원에서 새로 조명된 노장사상과 선사상(禪思想), 민중적 기독교사상 등의 핵심적인 생명원리를 창조적으로 통일한 보편적 생명사상입니다.

먼저 우리는 동학사상 전체가 압축된 주문의 넓고 깊고 큰 생명관을 이해함으로써 바로 지금 우리 민중에게 주어진 목전의 현실운동에 있어서 그 세계관적 기초와 그 실천적 방향 및 그 방법의 테두리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최수운 선생의 말씀에 의하면 이 주문은 그가 서기 1860년 음력 4월 5일 오전 11시 사시(巳時)에 깨우친 것인데, 한마디로 그것의 내용과 기능은 한울님을 지극히 위하고 섬김으로써 중생이 스스로를 한울님으로 드높이는 실천적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민중의 근원적인 주체인 생명을 민중자신, 중생자신이 지극히 위하고 섬김으로써, 그리고 그 생명의 역동적인 활동을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그 큰 생명으로 복귀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울 또는 한울님이란 민중과 중생의 삶 속에서 살아 생동하는 우주생명, 바로 그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최수운 선생은 이 주문을 열심히 닦고 실천

하는 사람은 그 깊고 넓은 뜻을 쉽게 깨우쳐 생명의 모든 이치를 다 알게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최수운 선생은 『동경대전』 가운데 논학문(論學文) 부분에서 21자의 주문에 대해 결정적인 해설을 붙이고 있는데, 이 주문 가운데 앞주문 8자의 뜻은 모두 본주문 13자의 뜻 속에 겹쳐져 있거나 반복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핵심적 의미는 본주문 13자 안에 다 들어 있어서 이 13자의 뜻만 잘 깨우쳐 안다면 앞주문의 뜻과 <궁궁영부>(弓弓靈符)의 뜻도 저절로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본주문의 생명사상을 최수운선생 자신의 해설을 따라가면서 오늘 죽임에서 살아나야 할 우리 자신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이 주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오늘의 문제들을 어떻게 파악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본주문(本呪文)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

본주문 해설(東經大全, 論學文 중에서)

侍者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

主者 稱其尊而 與父母同事者也

造化者 無爲而化也

定者 合其德 定其心也

永世者 人之平生也

不忘者 存想之意也

萬事者 數之多也

知者 知其道而 受其知也

故 明明其德 念念不忘則

至化至氣 至於至聖

인내천(人乃天)사상은 맨 먼저 <사람이 한울님을 모신다> 곧 <사천주>(侍天主)로부터 시작합니다. 의암(義菴) 손병희(孫秉熙) 선생은 <성

평출세설(性靈出世說)에서, 수운 선생이 풀이한 <시>(侍) 곧 <모심>의 세 가지 뜻이야말로 인내천의 정의(定義)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첫째 <안에 신기로운 영이 있고>(內有神靈), 둘째 <밖에 기운화합이 있으며>(外有氣化), 셋째 <온 세상사람이 각각 옮기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는다>(一世之人 各知移者也)는 뜻 안에 인내천사상과 인내천혁명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侍) 한 글자는 곧 인간생명의 주체인 영(靈)의 유기적 표현입니다. 인간과 우주의 자연적 통일,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통일, 인간과 사회의 혁명적 통일이 이 시(侍) 한 글자, <모심> 하나에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시>(侍) 안에는 최수운 선생의 인간과 우주의 자연적 통일로서의 시천(侍天)사상 뿐만 아니라 뒷날 최해월 선생의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통일로서의 양천(養天)사상, 나아가 동학혁명 민중전체와 전봉준 선생, 3·1운동 민족전체와 손병희 선생 등의 인간과 사회의 혁명적 통일로서의 체천(體天)사상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천(侍天) 안에 양천(養天)·체천(體天)이 들어있는 것만이 아니라, 양천 안에도 시천·체천이 있으며 체천 안에도 시천·양천이 있습니다. 씨앗 가운데 이미 성장과 열매가, 성장 가운데 씨와 열매가, 열매 가운데 씨앗과 성장이 다 있는 것과 같이.

동학은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 즉 행위의 가르침이요 인내천사상은 생명의 사상이며, 민중의 삶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활동, 생명운동 그 자체인 것입니다.

<시천주>, 내 안에 한울님을 모셨다는 뜻은 우선 모든 사람, 중생이, 끊임없이 활동하는 일체의 생명이 제 안에 한울님, 즉 끊임없이 활동하는 범생명의 활동을 모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한울이 사람과 중생의 모두 안에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람, 중생이 저마다 제 안에 살아계신 한울님을 모시고 적극적으로 섬김으로써 섬김의 주체인 내가 한울과 한 치의 틈바구니도 없이 일치하고 그 한울에 돌아가 나의 근원인 한울을 내가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주체요 나의 자아(自我)인 한울을 내가 살아 생동하는 가운데서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이 때 주인 주(主)자는 한울님을 뜻하며 한울이 사람과 중생 속에

주인으로서, 주체로서 살아 생동하여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수운 선생 자신은 이 <시천주>에 대한 해설에서 한울을 부모와 똑같이 모시고 섬긴다는 뜻으로 주인 <주>자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한울을 부모와 똑같이 모시고 섬긴다는 뜻은 거꾸로 부모를 한울과 똑같이 섬기고 모신다는 뜻인데, 이는 바로 섬기고 모시는 나와 중생이 부모로부터 생겨났다는 뜻을 가집니다. 『동경대전』(東經大全) 가운데 「불연기연」(不然其然)편에서 또는 기타 도처에서 수운 선생 자신이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모는 음양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음양상생(陰陽相生), 음양이 서로 화합하여 새 생명이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생명창조활동 과정 전체와 생물학적 진화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음양으로서의 부모, 부모로서의 음양, 곧 내가 태어나온 근원을 인위적으로, 적극적으로 섬김으로써 그 근원과의 일치를 이룩하여 주체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수운 선생은 여기에서 생명창조 과정과 생물학적 진화를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진화론은 서구진화론과 같은 미래주의적, 시간주의적인,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내뿜어나가는 것과 같은 상승적이고 계속적인 진화와 진보, 화살방향의 진화론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창조과정을 밟아 진화하되 나아가면서 돌아가고 돌아가면서 나아가는, 즉 창조되어 나아가되 나아가는 행위 자체가 섬김을 통해서 도리어 그 근원과 고향으로 돌아가고, 확장하면서 수렴하고 수렴하면서 확장하며 공시적(共時的)이면서 동시에 통시적(通時的)입니다. 「불연기연」(不然其然)이라는 글에서 보는 것처럼 수운의 진화론에서의 미래와 과거는 현재의 삶 속에 들어와 통일적으로 생동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수운 선생의 진화론은 시간방향의 미래주의적인 진화가 아니라 사방 팔방 시방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진화이며 동시에 생명의 근원으로 끊임없이 되돌아 들어가는 화엄적(華嚴的) 진화론이라 불러야 마땅합니다.

지금 여기의 삶 속에서 부모를 똑같이 한울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아버지만이 한울님이 아니라 어머니도 역시 한울님이라는 뜻이 되며 어머니는 음(陰)을, 아버지는 양(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부장제의 부정

과 더불어 역사에서의 모권지배사회, 즉 여성지배의 사회도 동시에 부정함을 뜻합니다. 그것은 진정하게 수평적인 남녀평등, 음양평등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음(陰)도 똑같은 태극으로서 높임받으며 섬김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음양, 남성 여성으로 활동하는 태극, 갈라지되 태극 속으로 아우러지는 활동적 통일로서의 한울의 섬김을 통해 한울과 일치하여 한울을 회복하고 한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울님이란 어디 인격적인 존재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음양의 통일로서 활동하고 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섬긴다는 것은 일을 통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즉 일 속에서 사람과 중생은 한울님이 되고 한울님은 일을 통해서 사람과 중생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중생은 일하는 섬김을 통해서 태극(太極)과 함께 무극(無極)을 스스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울을 부모같이 섬긴다는 것은 수직적으로, 우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신비로운 존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동 속에서 일하는 한울님을 섬긴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끊임없이 끊을 수 없는 연대관계 속의 부모, 그 친숙한 부모처럼 익숙하고 친숙하게 일 속에서 섬김으로써 한울과 사람 중생이 아주 익숙한 부모·자식 간의 관계 같은 일치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한울이 음양으로 활동하는 태극이란 뜻을 갖는 한, 한울님의 섬김은 아버지의 대담성, 남자의 광대함과 진취적인 활동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또는 여성의 온유함과 섬세함과 공동체적으로 생산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풍요하게 결실을 거두어 평화롭게 나누는, 그리고 걱정없는 행복 속에 포근히 감싸는 그런 대지의 덕성, 여성적 덕성을 아울러 섬기고 체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남녀동등의, 평등의 세상, 즉 후천(後天)의 세상을 실현하는 한울의 성취를 통해 사람과 중생이 진정한 자기 고향으로 복귀하는 것을 뜻합니다.

수운 선생이 본주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에 스스로 붙인 해설을 풀어서 말하면 대체 이상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시>(侍) 즉 모심이라 함은 안으로 신령(神靈)이 있고 밖으로 기화(氣化)가 있어서 온 세상 사람이 서로 옮기지 못할 것임을 아는 것이고 <주>(主)라 함은 존칭하여 부모와 똑같이 섬기는 것이

며, <造化>(造化)라 함은 무위이화(無爲而化)로서 즉 아무것도 함이 없
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활동함으로써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정>(定)이라 함은 그 활동의 덕에 합하여 마음을 정하는 것이고, <영
세>(永世)라 함은 사람의 평생이요, <불망>(不忘)이라 함은 언제나 생
각을 두어 잊지 않는다는 뜻이요, <만사>(萬事)라 함은 수의 많음이요,
<지>(知)라 함은 그 도를 알아 그 지혜를 받는다는 뜻이니, 그러므로
밝고 밝은 그 덕을 생각하고 생각해서 잊지 아니하면 지극한 지기(至氣)
로 화하여 지극한 성인의 경지에 이를 것이더라는 뜻입니다.

侍者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

<모심>이란 섬김입니다. 모심은 사람이, 민중이, 중생이 안으로는 신
령, 생명, 또는 무어라고 불러도 좋을 영성(靈性), 부처, 진리, 다사
말해 처음도 끝도 없고 무변광대하며 끊임없이 물결치며 생동하는 영
(靈), 즉 생동하는 생명, 근원적인 생명 그 자체를 모심으로써 생동케
하고, 밖으로는 그 생명이 무궁무궁하게 유기적이고 통일적으로 사회적
으로 활동케 함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서로 따로
따로 옮겨살 수 없는 통일적인 생명임을 스스로의 실천을 통해 혁명적
으로 깨우쳐 안다는 말입니다. 모심이란 생명활동에 대한 그저 객관적
인 관찰이 아니라 인위적이고 실천적, 역동적인 모심인 까닭에 신령한
생명이 끊임없이 무궁하게 활동하도록 <인위적으로> 활동시킴을 뜻합니
다.

동학의 인내천사상의 심오한 뜻은 결국은 이 <시>(侍) 한 자 속에 전
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생명의 주체인
영(靈)의 유기적 표현입니다. 인간과 우주의 자연적 통일, 인간과 인간
의 사회적 통일, 인간과 사회의 혁명적 통일이 <시>(侍) 한 자 속에 통
일되어 있다고 이미 앞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유신령(內有神靈)의 <신>(神)자와 외유기화(外有氣化)의
<기>(氣)자는 맞 짝을 이루어 하나의 말, 즉 <신기>(神氣)란 말을 만듭

니다. 이 <신기>는 유기론(唯氣論)에서 말하는 일기(一氣)로서 음양의 통일로서의 태극, 근원적인, 통일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화>(氣化)는 노장사상에서 말하는 도(道)의 물화(物化), 진리의 운동을 뜻하는 물화에 대비되며 역학(易學)에서 말하는 기(氣)의 운동, 즉 변화 발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령의 기화란 생명의 무궁한 활동, 즉 인간 역사의 경우 노동이며 순환이며 창조이며 확장이며 반복이며 통일이며 수렴을 말합니다. 그것은 끝도 갓도 없이 물결치는 바다 같은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모심>이란 생명이 바로 그 본성에 따라 활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유신령 외유기화>(內有神靈 外有氣化)에서의 <유>(有)는 단순히 <무>(無)에 대립하는 <유>가 아니라, 단순한 <있음>이 아니라 살아 있음, 참답게 활동다움게 살아 있음, 즉 활동하게 함을 뜻합니다. 존재는 곧 활동이며, 활동은 곧 존재입니다. 활동과 분리된, 정지된 존재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일체의 <유>(有)는 활동하는 유이지 정지된 유가 아닙니다. 즉 생존(生存)입니다.

<외유기화>(外有氣化)에 있어서의 <화>(化). 여기에서의 <화>는 온갖 천변만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역>(易), 역학(易學)에서 말하는 변할 <역>(易)입니다. 그것은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화·운동·확장·수렴하는 운동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적인 노동입니다. 음양의 끝없는 접촉과 상호작용과 변화와 순환과 창조적인 활동, 즉 새로운 생명의 창조와 그것의 성장과 쇠퇴 전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또한 이 <화>는 일치함, 통일, 협동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공생함, 서로 얽힘, 서로 상생(相生)함을 뜻합니다. 즉 창조적 노동 속에서 협동적으로 생산하며 평등하게 협동적으로 나누며 서로 일치 통일하는 활동, 상부상조하고 상보(相補)하는 공생(共生)의 공동체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유신령 외유기화>(內有神靈 外有氣化)라 하여 <안>과 <밖>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유>(有)란 살아 생존하는 존재이므로 안과 밖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의 역

사적 한계, 사람 삶의 물질적 한계 때문에 방편상 분별해서 쓰고 있을 뿐, 그것은 분단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과 밖으로 표현한 것은 살아 활동하는 생존, 즉 존재의 활동은 근원적으로 일원적이고 통일적이되, 구체적인 생명의 운동과정에서는 안과 밖의 잠정적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수운사상의 일원론(一元論)에 입각한 역동적인 이원론, 일원적 이원론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과 기화를 따로 나누지 않고 통일적으로 파악한다면 신령기화, 즉 신령의 기화 활동이겠는데, 이것은 <체>(體) 즉 본질에서, <용>(用) 즉 현상으로 활동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용에서 체로도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디는 체와 용이 따로 없고 본성에서 현상으로, 현상에서 본성으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활동 전체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령의 기화란 말은 <신기>(神氣)가 <영화>(靈化)한다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는 영성화(靈性化)로서 해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노동, 공동체적 노동과 공동분배, 공동체적 민중생존의 확대를 말하는 동시에 영성화, 무궁무한한 영원, 영원한 생명 상태로 확장·해방해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일상적 노동활동의 한울님으로서의 확장이면서 한울님으로 변화함, 한울님과 같이 자유로운 창조적 활동상태로 해방된다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역동적 창조노동속에서의 인간의 사회적 성화(聖化)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영성은 개인적인 영성이면서도,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영성입니다. 이 모든 것의 비밀은 <유>(有) 있음, 살아 생동하는 활동적 존재인 <유>에 숨어 있습니다. 이 <유>는 안과 밖의 신령과 기화를 신기의 영화로, 또는 신령의 기화로, 노동의 해방으로, 해방의 노동으로, 안을 밖으로, 밖을 안으로 역동적으로 통일시키는 보편적 생존의 활동을 압축 암시하고 있습니다. 안과 밖이 따로 없으면서도 동시에 따로 분별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일원론 위에서의 역동적인 이원론에 수운 선생과 동학의 생명관, 민중적 생명의 세계관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일세지인 각지불이자야>(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란 세상의 모든 사

사람들이 각각 서로 본성에서 옮겨 살 수 없음을 깨우쳐 안다라는 뜻입니다. 우선 <일세지인>(一世之人)의 <인>(人)부터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사람 <인>은 어떤 특정 시대와 사회의 제약을 받는 어떤 인간, 집단적 인간, 즉 민중을 뜻하면서도 동시에 전중생을 뜻합니다. 사람이란 큰 생명, 전중생, 범생명이면서도 동시에 일세(一世) 즉 한 세상의 사람으로서 시대와 사회의 제약을 받는 육신화된 인간, 개인이면서 동시에 집단적인 민중입니다. 민중은 전중생이며 전중생은 곧 민중입니다. 전중생이라는 범생명의 활동적 역사적 주체로서 민중을 파악해야만 사회적 제약을 받는 민중의 전생명계적 의미가 오히려 올바르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며 또 반대로 시대와 사회의 제약을 받는 민중의 구체적인 삶, 그 현실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죽음, 이에 맞서 생명의 본성으로부터 출발한 민중의 집단적인 저항 활동을 통해서만 참된 전중생, 범생명으로 확장되는 민중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각지불이자야>(各知不移者也)에서의 <각>(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역사적 사회적 조건, 개인적으로는 개성, 개체의 이러저러한 특수한 성격적, 환경적, 선천적, 후천적 온갖 조건, 주·객관적 조건 전체를 뜻합니다. 그같은 조건에 입각하여, 조건을 통해서 조건과 더불어 본질적인, 본성적인 생명의 실상을 깨우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의 안다는 <지>(知)는 감각, 지각 또는 통각을 통해서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한 지혜나 각성이 아니라, 깨우쳐 앎이며 실천적 지혜로서의 앎입니다. 머리로 분석해서 계산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의 지혜로서 아는 것입니다. 즉 앎으로서의 참삶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깨우쳐 아는 것인가? 역사적, 사회적, 주·객관적 조건을 통해서, 의지해서 어떤 보편적인 것을 아는 것인가? <각지불이자>(各知不移者) 그것은 즉 <불이자>(不移者)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서로 옮겨살 수 없음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닐 불자, 옮길 이자에 놓 자자가 불음으로 해서 그것은 본성 자체부터, 본성적으로, 본시부터 옮길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어느 때는 옮길 수 있고 어느 때는 옮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을 놔 자자로 표현하여 못박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옮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그것은 제멋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제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저 좋은 대로 제 이익대로 제 마음대로 놀아나고 방자하게 세상을 휘둘러 버리려는 것, 그것이 본성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다, 본성에서 벗어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또한 유기적·연대적인 관계를 떠나서 저 혼자서만, 따로 살짝 혼자서만 살 궁리를 하는 도생(圖生)주의적인 방자한 태도를 말합니다. 공동체로부터 따로 떨어져 산 속에서, 남 모르는 숲 속에 들어가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이 본성적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공동체 안에 살면서도 스스로는 따로 사는 것, 당파를 만들고 분화주의를 일삼고 서로 헐뜯고 저만 혼자 잘 살고 우뚝 설려고 하는 태도, 경쟁적인 태도, 바로 이와같은 것들이 모두 다 옮김입니다.

둘째로, 이 옮김은 생명의 본성에서의 옮김, 생명의 본성에서 떨어져 나감을 뜻합니다. 생명의 본성인 신령기화 또는 신기영화, 기화신령 즉 앞에서도 말했듯이 영성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생명의 본성, 협동적으로 살게 되어 있는 생명의 본성, 자유롭게 무궁무궁하게 확장하는 생명의 본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민중이 자신의 본성인 이같은 생명의 실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그 실상을 오히려 역습하는, 자신의 자아를 오히려 꺾어먹고 파괴하는 자기배신을 뜻합니다. 이 자기배신을 소외라고도 부르는데, 이 소외가 바로 옮김입니다.

셋째로, 그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죽음의 힘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타율적으로 격리당하고 차단당하고 분단당하고 억압당하고 약탈당하고 막힘당하고 감금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함께 살게 되어 있는 것이 함께 살 수 없도록 강제로 헤어지게 되는, 자유롭게 살도록 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할 본성이 감금당하는, 계속 흘러넘쳐야 할 생명이 냉동당하는, 서로 연결 속에서 유기적으로 상호교환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생명이 분단·고립당하는, 자유롭게 자기를 무궁무궁 신장시켜야 할 생명이 그 본성과 반대로 거슬러서 어떤 억압과 죽음의 세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억눌림당하는 이 모든 것을 옮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째, 그것은 기화신령(氣化神靈), 공동체적 영성(靈性)을 말합니다.

(공동체적 영성이란 말이 요즘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방편상 이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그러나 기화신령이란 말은 공동체적 영성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화신령은 훨씬 넓고 다양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적인 자유라 할까요?) 그것은 본성적인 생명공동체에서 떨어져나가 고립화되고 물질화되어 굳어져 신선한 생명의 자유로운 물결을 거스르고 통일적인 공동체 활동을 역습하고 파괴하고 분단하는 생명에 대한 억압, 착취, 분열, 해체, 분단, 독재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고립화, 입자화, 이것 저것을 따로 떼어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 것처럼 요소 요소로 나누어서 보는 요소론(要素論), 생명의 분할, 모든 생명활동에 본질적으로 대립하는 것, 삶이란 본디부터, 바탕에서부터 오로지 투쟁하는 것이고 서로 충돌하는 것이고 갈등하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남에게도 그렇게 이해하도록 세뇌시키고 말을 안 들을 때는 총을 갖다 대고 어거지로 강요하고 주입시킴으로써 본성적인 생명의 자유롭고 생생한 활동의 전개를 죽이는, 자르고 눌러서 죽이는 죽임, 자연적인 죽음이 아닌 인위적인 죽임, 억압자에 의한 인위적인 죽임 일체를 옫김이라 부릅니다.

다섯째, 그것은 우리가 제3세계론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민중의 <뿌리 뽑힘>입니다. 자기 생명의 익숙한 현대적 관계로부터, 그리고 자기와 친화해 있는 자연, 동식물과 흙과 물과 바람으로부터, 고향과 문화적인 공동체의 추억과 자기 민족의 역사로부터, 역사의 기억으로부터, 자기 이웃들과의 끈질긴 정으로 연결된 온갖 생명의 유기적인 상태로부터 뿌리뽑아서 옫겨놓은 것, 뿌리뽑힌 상태, 뿌리뽑혀 유랑하는 것, 끊임없는 유민상태로 내던져지는 것, 원자적으로 분해되어 버리는 것, 분열되는 것, 객체로 전화되는 것, 끝없는 이민 유민 천민의 상태로, 밑바닥으로 떨어지며, 물질로, 도구로, 연장으로 종살이로, 노동노예로, 임금노예로, 또는 천대받는 범죄자로, 쓰레기로 전락해 가는 것을 옫김이라고 부릅니다.

여섯째, 생명활동은 공동체적으로 생산하며 그 결과로 축성(築成)된 생산가치를 평등하게 분배해서 나누어 먹고 다시금 확대생산을 위한 생명활동의 역량을 축적시키는 것을 그 본성으로 하는데, 이같은 본성으

로부터 민중을 떼어내는 것을 옹검이라고 합니다. 생명활동인 노동력과 그 노동의 결과인 가치를, 그리고 미래에 확대재생산될 생명활동, 질적으로 높아지고 심화되고 확장된 생명활동의 기본적 동기인 노동의욕, 삶의 의욕 일체를 빼앗아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즉 생명활동의 결과인 밥, 그리고 그 밥을 통한 새로운 확대재생산의 의욕 즉 생명의욕을 모두 다 약탈해서 그것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부터 다른 곳으로 강제 이동·수송시키는, 본자리로부터 옮겨 놓는 일체의 수탈, 착취, 약탈을 옹검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전세계에 거미줄같이 쳐진 도로, 항로, 공로와 통신망과 위성 등을 통한 일체 물질적 및 문화적 가치들의 국제적 이전·수송 또한 옹검입니다. 원래 노동의 결과인 밥은 노동의 주체인 민중에게 되돌아와 다시 확대재생산되는 것이 생명의 본성적 창조적 순환의 원리입니다. 바로 이같은 순환활동을 차단해서 생산된 가치, 즉 밥을, 잉여를 그 주체에게 되돌려 보내지 않고 고정시키고 잠금시키고 독점함으로써 본래의 가치의 순환으로부터 가치 자체를 떼어내는 것, 이 독점을 또한 옹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본래 통일적이고 일원적인 생명을 이원적으로 분리시켜, 본시 가져가는 자가 따로 있고 일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듯이, 너와 나를 분열시키고 문화와 노동을 분리·분열시키는 것, 하늘과 땅이, 인간과 신이 분열되고 주인과 노예는 본래부터 다른 것이고, 귀족과 천민은 원래 따로 있는 것이고, 노동자와 기업가가, 자본과 노동이 원래부터 분리되는 것이라는,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게 되어 있다는 식으로 갈라 보는 이원론, 극대화된 분별지, 이것을 우리는 본성적 생명 인식으로부터 옹검이라고 부릅니다. 거짓말인 이원론을 생명의 실상인 것처럼 속여먹고 세뇌시키는 것, 음양의 잠정적인 분리를 생명활동의 본성인 것처럼 속여먹는 일체의 교육, 대중매체활동, 예술, 학문, 과학활동이 바로 옹검입니다.

또한 이로부터 받는 고통의 짐을 제 스스로 지지 않고 남에게 전가시키는 짐의 옹검도 <옹검>입니다. 짐을 옹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이면 가족으로부터 고향으로부터, 사회적인 집인 민족으로부터, 역사로부터 자기이탈을 함으로써 자신을 배반하고 민족을, 인간생명을 배반하는 이탈, 이것이 옹검입니다. 자기 고통을 남에게 옹기는 것은 더 말할 나

위없는 율김입니다. 영웅은 제후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제후는 신하에게, 신하는 백성에게, 밑바닥 민중에게, 노동하는 민중에게 자기의 고통을 전가시키고, 또는 한 민족은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짓밟고 약탈하고 억누름으로써 자기의 고통을 옮기고, 또한 개인은 밖에서 받은 고통을 집안에 들어와 여편네를 두들겨 팼으로써 마누라에게 옮기고, 여편네는 남편으로부터 받은,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받은 고통,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억압당한 여자로서의 고통을 아이를 두들겨 팼으로써 자식에게 옮기고, 아이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중생, 즉 풀과 나무와 벌레와 짐승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밟아죽이고 찢어죽이고 잡아먹어 잔인성을 발휘함으로써, 원풀이를 함으로써 다른 생명체로 자기 고통을 옮기는 이같은 연쇄적인 율김, 이 모든 것이 율김입니다.

그러나 율김 가운데서도 가장 커다란 율김, 율김 중에도 못된 율김은 한 민족을 분단시켜 허리를 잘라버리는 죽임입니다. 집단적 생명체인 민족에게서 생명을 떼어내 버리며, 민족 혈액의 순환을 막아 활력을 빼내며, 민족문화와 민족혼을 송두리채 뽑아버리고 악마혼, 매판문화, 죽임의 문화로 옮겨놓는 것, 북쪽 사람을 가족과 떼어내 남쪽으로 옮겨놓고, 남쪽 사람을 가족과 떼어내 북쪽으로 옮겨놓는 것, 무수한 사람을 이민이란 이름으로 오대양 육대주의 낯선 도시와 황야로 옮겨놓는 것.

이같은 율김이 생명의 본성에 알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불이자야>(不_レ移者也)의 아닐 <불>(不)자의 뜻입니다. 생명은 본래 통일적이고 일원적이고 유기적이고 연대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이다, 자유롭고 해방적이고 창조적이고 영성적인 것이다, 서로 섬김, 상호 존중이 삶의 실상이다, 그러므로 그로부터 떨어져 나감은 본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런 삶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이 <불>(不)자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 때는 문제가 생긴다, 병이 생긴다, 생명의 길 즉 기혈이 막힌다. 개인도 병들고 사회도 병든다, 썩어 문드러진다, 고통이 만연한다, 죽음이 지배질서로 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불>자의 가르침입니다. 억압자, 약탈자들에 의해 민중이 소외당하고 죽임당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전가받는 삶, 허우적거리는 삶, 약육강식, 타인도태, 독극물에 의한 소비자 살해, 대규모 살상무기의 생산, 전쟁, 자

원의 약탈과 고갈, 수질오염, 대기오염, 탄압, 고문, 대량학살, 군비경쟁, 전쟁, 핵확산 등 일체의 생명파괴활동은 생명의 본성에 위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부정적, 악마적 현실이다라는 뜻이 <불이자>(不移者)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정은 부정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아닐 <불>자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닐 <불>자는 본질적으로 그것이 아니다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역동적인 실천적인 부정을 뜻합니다. 민중생명의 자기복귀는 이같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민중생명 전체의 자체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저항, 전면적이고 지속적이고 확장적인 끊임없는 저항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민중이, 민족이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통 제3세계 민중 전체가 당하고 있는, 인간 전체와 중생계 전체가 당하고 있는 일체의 억압과 독재와 독점, 차단과 분열·공해·전쟁 등 보편적인 생명파괴 현상을 세계의 실상인 것으로 착각시키는, 그래서 민중을 자기배신의 소외의 늪으로 몰아넣는 인간의 물질화, 민족분단, 죽임, 생명파괴 등 <옳김>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생명의 본성에 따른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닐 불<不>자는 역동적·실천적인 부정의 부정입니다.

바로 이 <불이자>(不移者) 곧 <옳길수 없음>의 실천적 표현이 동학에서는 <십무천>(十毋天)과 <삼전론>(三戰論)으로 명확히 나타납니다. <십무천>(十毋天)은 이 <옳김>이라는 부정에 대한 <하지 말라>라는 실천적 부정의 표현입니다. <십무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기천(毋欺天) : 한울(사람, 중생, 생명)을 속이지 말라.

무만천(毋慢天) : 한울을 업수이 여기지 말라.

무상천(毋傷天) : 한울을 다치지 말라.

무란천(毋亂天) : 한울을 어지럽히지 말라.

무요천(毋夭天) : 한울을 죽이지 말라.

무오천(毋汚天) : 한울을 더럽히지 말라.

무뇌천(毋餒天) : 한울을 굶기지 말라.

무괴천(毋壞天) : 한울을 부수지 말라.

무염천(毋厭天) : 한울을 싫어하지 말라.

무굴천(毋屈天) : 한울을 굴복시키지 말라.

그리고 이와같은 부정의 부정 실천의 전략적 지침이 바로 <삼전론> (三戰論)이올시다. 삼전(三戰)은 도전(道戰), 재전(財戰), 언전(言戰)으로서 정치 도덕적 전투, 사회 경제적 전투, 언어 심리적 전투가 그것인데 이것들은 모두 이른바 <인간과 사회의 혁명적 통일>인 체천(體天)의 구체적 방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의 실천은 동학의 역사에서 이미 민족서사시적으로 수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운 선생의 13자 주문에 대한 해설에는 <시천주>(侍天主)와 <천>(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모신다는 시자의 설명 다음에 바로 주인이라는 <주>(主)자의 설명으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수운 선생은 왜 <천>(天)을 설명하지 않고 활동적인 섭김의 <시>에서 <주>라는 주체의 사상으로 넘어가 버렸을까요? 활동하는 주체에 어떤 말로써 표현하기 힘든 <천>(天), 즉 왜 하늘을 공(空)으로 비워서 남겨놓았을까요? 바로 이 <천>을 무(無)로, 없음, 비움의 상태로 남겨둔 것에, 즉 괄호로 남겨둔 것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활동하는 무(無)로서의 중심적 전체를 뜻합니다. 텅비어 있음으로 해서 신선한 생명의 물결이 펄펄하며 춤추며 약동하며 생산적으로 노동하게 하는 <무>입니다. 생명의 심장은 바로 이같은 텅빈 상태, 무, 없음의 상태, 유와 무의 대립으로서의 무가 아니라 유와 무를 넘어서 있는 텅바움, 여백, 그럼으로써 유와 무를 상호연관 속에서 생생하게 활동시키는 그런 중심적인 눈, 태풍의 눈, 씨눈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명의 원리는 바로 자유이며 자유가 바로 생명의 심장이라는 수운 선생의 생각에 대한 우리의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천>(天)을 설명하고 규정하며 그 규정을 강조하는 순간부터 이상숭배는 시작되며 생명에 대한 이상의 억압, 그 죽임이 시작됩니다. 생명의 심장은 자유입니다. 민중생명이 끊임없이 되돌아가려 하는 것, 회복하려 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텅 비어 있어 참으로 생생하게 살아나는 해방입니다. 따라서 민중이 가고자 하는 곳은 나의 역사적 한계 안에 들어 있는 역사적 규정성을 다방면으로 받아

들이면서도 그것을 넘어서 가려는 근원인 <무>, 활동적인 <무>, 중심적 전체로서의 무, 무궁무궁하고 크고 넓고 깊은 중심적 전체, 즉 자유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중의 집단적 생명주체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참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민중운동으로서의 해방운동, 민중운동으로서의 통일운동, 이 전체를 아우르는 민중의 자기복귀운동인 생명운동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천주>(侍天主)의 <주>(主)는 무엇일까요. 앞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수운선생은 <주자>(主者)는, 즉 <주>라는 것은 <칭기존이 여 부모동사자야>(稱其尊而 與父母同事者也)라 하였습니다. <주>(主)라는 것은 존칭해서 높여 부르며 부모와 똑같이 부모와 하나도 다름없이, 섬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의 <주>(主)는 주인공, 주체,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 여래(如來), 여여(如如), 불이(不二), 일여(一如) 등 여러가지 말로 씁니다만, 바로 그것,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여러 노동활동과 창조활동, 여러 저항활동들을 시키는 살아 있는 모든 존재의 주체일 것입니다. <주>(主)는 주인이라는 <주>자인데, 여기서는 주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중생명이 나오고 또한 되돌아가야 할 바로 그 자아가 주체입니다. 그리고 <주>는 한마디로 <님>입니다. 그래서 천주는 한울님이 되고 한울이라는 주체가 됩니다. <칭기존이>(稱其尊而)에서의 <칭>(稱)은 칭한다, 부른다는 뜻인데 <칭기존>(稱其尊)을 합쳐부르면 <님이라 부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님이라는 호칭, 주인이라고 부르는 호칭은 하나의 자각적 구성행위, 자각적 확인 행위인 동시에 님이라 부르는 어떤 곳으로 복귀하려는, 그리로 지향하려는 활동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 호칭이 갖는 의미를 다각도로 음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울을 아버지라고 자꾸 호칭함으로써, 높여서 님이라고 부름으로써 님 자체는 일단 물질화되어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님이라고 부르며 그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끊임없이 지향함으로써, 복귀활동 지향 활동을 그 방향으로 진행시킴으로써, 이 진행하는 힘, 생명활동의 유출 방향, 즉 벡타가 이 님으로 집중해 들어감으로써 님 앞에 붙는 하늘이

마치 인격적 존재처럼 물질화되고 고정되곤 합니다. 가부장제적 권위주의의 문명사회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통치자, 절대자, 마치 인격적 존재로서 명령하고 통치하고 억압하고 분단하고 때려부수고 다시 세우는 절대권을 가진 그런 실재로서, 지배자로서, 강력한 자로서, 어마어마한 챔피언으로서, 엄청난 근육과 무궁무진한 힘을 가진 군림자, 왕자, 임금, 천자, 황제로서, 그리고 끊임없이 질투하고 저주를 내리고, 끊임없이 축복도 주며, 끊임없이 휩쓸어버리는, 때려부수는, 공갈치는, 겁주는, 성내기 잘하는, 싸움 잘하는 그러한 자로서 인식되고, 또한 호칭하는 자 스스로에게 있어 그렇게 실천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호칭을 통한 생명활동의 끊임없는 유출량의 집중, 벡타의 집중이 강력하면 할수록 그만큼 그 대상은 점점 더물질화되고 고정돼서 환상적인 형태로 실재하게 되고 실제로서 환상됩니다. 그래서 지배자의 탄생, 억압자의 탄생을 발생합니다. 이것이 자기소외의 과정인데, 그리고 생명활동의 극단적인 자기배신 과정인데, 바로 <옮김>의 과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참다운 의미에서의 호칭활동과 지향활동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학에서는 님이라 부르는 호칭활동이 엄청나게 강조되되 그러나 님의 내용인 한울에 대한 규정이 없이 공(空)으로 비어져 있습니다. 강렬한 자각적 활동의 중심적 전체가 <무>(無)입니다. 참된 자유, 살아 행동하는 해방에로의 치열하고 맹렬한 지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러한 지향활동 과정에서 극단적인 물질화, 고정화가 나타나고 억압자가 나타나 거꾸로 역습해 올 때 그 역습이라는 <옮김>, 근본적 분리인 것처럼 옮겨가는 과정 자체에 대해 불이자(不移者)의 그 실천적 부정으로 저항·극복함으로써 참된 호칭활동, 한 지점으로 끊임없이 지향하고 집중해 들어가는 참된 생명활동을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님이라고 부르는 지향활동의 대상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지배자, 강자, 싸우는 자, 무서운 자만이 아니라 어머니, 연약한 자, 지배받는 자, 억눌린 자, 화해하는 자, 친절한 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처럼 음양이 다같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끊임없이 활동하는 텅빈 자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그러면서도 생산적인 물질화 과정을 동반하는 그런 활동적인 <무>(無)로서 인식되고 호칭되고, 끊임없이 그곳

으로 지향함으로써만 호칭활동, 지향활동은 진정한 자기복귀활동으로서의 민중생명의 해방과정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칭기준>(稱其尊)에서의 <기>(其)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 일까요? 여기서의 <그>(其)라는 말은 <시천주>(侍天主)에서 하늘의 설명을 공(空)으로 남겨놓은 대신 한울이라는 것에 대해 단서를 잡을 수 있는 다리, 실마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만이 있지 그 뒤에 오는 그 무엇, 그 성냥개비, 그 라이터, 그 불뎀, 그 똥, 그 녹음기 등 구체적 대상을 적시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자유를 향한 지시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 지시는 활동적인 지시, 지향적 지시입니다. 여기서의 그 는 섬기는 활동, 모시는 활동을 강하게 끌어들이는 텅빈 자유, 텅빈 주체, 텅빈 흡입자를 유추케 하는 하나의 단서입니다. 또한 <그>라는 말은 서로 다른 문명권, 서로 다른 사회의 역사적 특수 조건과 개성적인, 개체적인 주·객관적 조건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울님은, 한울을 가리키는 비워진 상태로 남겨진 그것은 이러저러한 시대의 이러저러한 역사, 개성, 문명권 안에서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저런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유동적인 다양한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천>(天), 즉 한울은 무어라고 명언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其)를 앞에 붙임으로써 이리 저리 가늠됩니다. 그때 그때마다, 사람 사람마다, 사회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문화권마다 또 경우마다 보편적인 실상이 특수한 조건성을 가짐으로써 명백한 역사적 구체성, 사회적 구체성, 현실성, 실천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그>는 앞의 <각지불이자>(各知不移者)의 <각>(各)과 대응합니다. 가령 민중이란 말을 놓고 볼 때도 시대마다 지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중을 일단 생산주체라고 할 때 농경사회에서는 농민이고 산업사회에서는 산업노동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각>(各)과 <그>(其)는 종(種)개념적인 규정을 만드는 계기가 되며, 보편적인 생명의 근원인 한울이라든가 자유라든가 통일이라든가 중심적 전체라든가 어떤 말로서 이름짓기 힘든 분명히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기 힘든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무언가 구체적 접근을 가능케 해 줍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수운 선생과 동학사상의 민중적 생명의 세계관의 기본구조의 독특함을 감지하게 됩

니다.

하여튼 무어라고 딱 꼬집을 수는 없는 생명의 어떤 근원, 실상 즉 한울을 닮은 것으로 받들고 모시고 높임으로써 근원적인 생명인 한울로 집중 지향한다는 뜻을 <칭기존>(稱其尊)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울을 모셨다 했을 때, 이 모셔진 한울을 닮은 것으로 높이 받들으로써 인간이 자신을 비하시키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성화(聖化)하고 거룩하게 하고 무궁무궁하게 무변광대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계신 한울을 닮은 것으로 높인다는 것은 자기만이 모시는 한울이 아니라 똑같이 남도 모신 한울이기 때문에, 그 한울을 모신 남, 이웃사람, 온 민중, 다른 민족,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풀, 벌레, 동식물과 공기, 대기, 하나의 입자들까지, 우주의 일체의 삼라만상까지 다 존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같은 존중은 우리로 하여금 독선이나 아집(我執)이나 유아론(唯我論), <나>중심주의, 개인중심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확대할 수 있는, 공동체적으로 생각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른바 인간의 사회적 성화입니다.

<칭기존이>(稱其尊而)에서의 <그>(其)는 끊임없이 평평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중심적 전체, 모든 선(善)의 원천, 옳은 것의 원천을 자기가 구체적으로, 역사적, 사회적, 주·객관적으로 처한 특수한 환경 속에 조건지워진 지금 여기에 있어서의 <나>가 끊임없이 자각하고 확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각, 확인, 집중과정에 벡타가 고도로 집중됨으로써 대상을 물질화시키고 육신화시키고 고정시킴으로써, 인격적인 존재로 떠받들으로써, 마치 생산노동의 가치인 잉여가 지배자로 전변(轉變)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울님을 지배자로, 억압자로, 군림자로, 분단자로, 세뇌자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자한 어떤 주체로 거꾸로 뒤집어 놓아 자기배신시키고 소외시키는 악과 억압과 죽임의 발생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아로 복귀하려는 활동자체가 악이요 억압과정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활동과정이 강렬할수록 더욱 더 생생하게 해방되는 것입니다. 더

우기 참된 자기로 돌아가려는 활동자체에서 발생하는 억압과 죽임 즉 율김을 끝없이 경계하고 저항하며 이것을 극복하고 물리침으로써 진정한 자기회복을 창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부모 동사자야〉(與父母同事者也)의 〈여〉(與)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與)는 더불어, 함께, 똑같이, 수평적으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불교(禪佛敎)나 화엄(華嚴)에서 말하는 일여(一如), 불이(不二)의 뜻입니다, 하나이며 둘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둘인 것에 저항하여 하나로 통일적인 본성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여〉는 동시에 무엇과 무엇이라고 할 때의 평형적 나열의 뜻을 가진 〈…과〉의 의미를 지닙니다. 부모, 음양, 태극, 한울과 같은 분별적인 것들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라는 것, 하나이면서도 〈여〉 즉 〈…과〉로서 서로 수평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원래 하나이되 운동과정에서는 잠정적 분리와 대칭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여〉에는 〈불연기연〉(不然其然), 즉 〈아니다. 그렇다〉의 구조를 그대로 압축하는 불연기연의 역설의 논리, 반대일치의 생명논리의 활동적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여부모 동사자야〉(與父母 同事者也)의 〈동사자〉(同事者)란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事)자는 섬긴다는 〈사〉이면서 일 〈사〉자입니다. 동사(同事)는 같은 일을 한다. 같은 노동을 한다. 즉 동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동사〉는 섬김이므로 동일한 목표를 섬기고 지향한다는 뜻에서의 동지이기도 합니다. 즉 부모를 똑같이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부모와 동무요 동지라는 뜻이올시다. 이 말은 수평적인 친교의 뜻을 나타냅니다. 한울과 부모, 신과 인간, 태극과 음양, 본성과 운동, 본질과 현상, 체(體)와 용(用), 문화와 노동, 정신과 육체, 의식과 물질, 고요와 생동, 생명과 협동적 활동 등은 수평적 친교, 수평적 교호관계에 있는 근원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통일체라는 뜻이며 또한 섬김받는 자(한울과 부모)와 섬기는 자(인간과 자식)가 똑같은 동무요 동지라는 것, 섬김, 일하는 섬김, 창조하는 섬김을 통해 역동적으로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한울이 곧 부모요 부모가 곧 한울이란 뜻이며 동시에 부모가 바로

자식이요 자식이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따라서 효도는 자식이 부모에게 할 뿐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도 해야 하는 생명 본래의 창조적인 친교활동입니다.

<동사>는 앞서도 이야기된 바 있듯이 똑같이, 비슷비슷하게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똑같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음도 양과 똑같이 섬김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섬김을 통해 섬기는 자는 생명의 큰 근원인 큰 생명처럼 거룩한 생명으로 점점 높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커다란 새로운 개혁을 현실적으로 가능케 하는 지향활동의 화두(話頭)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천시대(先天時代)에는 서로 분열되고 수직적인 지배와 피지배관계, 상호 대립·상극관계에 있었던 것이 새로운 개혁, 즉 후천시대에는 수평적으로 창조적으로 통일되어 상생관계(相生關係)로 변혁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도 놈 <자>(者)자를 씀으로써 그같은 수평적 통일이 본성적인 것이며 본질적인 것임을 당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同事)란 같이 일하고 같이 섬긴다는 뜻이므로, 노동하는 삶, 일하는 삶이 참다운 삶일 뿐만 아니라 서로 섬기는 삶,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섬기며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란 것을 말해 주는 것이겠습니다. 음양과 태극이 서로 돌고 돌면서 함께 살듯이 모든 삶, 모든 생명, 중생은 서로 동무로서 동지로서 함께 일하고 서로 섬기는 생명공동체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즉 한울과 사람, 부모와 자식, 사람과 사람, 민중과 중생은 다 길동무, 동반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긋나는 것은 <웁김>이며, 웁김은 바로 죽임이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면 <칭기존이>(稱其尊而)에서의 <이>(而), <말이을 이>(而)자는 무슨 뜻으로 쓴 것일까요? 생명의 근원, 한울님을 님으로 불러 모심으로써 생명의 본성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함께 일하고 함께 섬김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공동체를 이룩하는 유기적 공화(共和)라는 것을 이 글자는 나타냅니다. 님으로 불러 높임으로 함께 일하는 친구가 되고, 친구로서 함께 일하는 섬김을 통해 님으로 불러 높임입니다. 둘

은 마찬가지로 서로 활동 속에서 상승·순환한다는 뜻으로 <이>(而)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而)는 이 두가지를 수평적으로, 동시적으로 통일시켜 주는 활동적인 계사(繼辭)입니다.

造化者 無爲而化也 定者 合其德 定其心也

<造化자>는 <무위이화야>(無爲而化也)라 하였습니다. 글자를 한자 한자 풀어 보면 만들 <조>자, 변화할 <화>자, 없을 <무>, 하(행할) <위> 그리고 또 계사로서의 말 이을 <이>, 변화할 <화>, 이끼 <야>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造化>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변만화하는 온갖 형태의 세상만사의 변화활동을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어떤 사물이 어떤 거룩한 변모과정을 겪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선 이것을 노자(老子)의 <무위무불위>(無爲無不爲)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무궁하게 활동하고 변화하고 순환하는 것, 순환하되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확대재생산적으로 순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궁무궁한 변화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이때에도 <무위>와 <화>는 <이>(而)로써 연결되는데, 이때의 <이>(而) 역시 수평적 동일성, 동시 발생성, 동시 활동성을 나타내는 활동적 계사입니다. 즉 <무위>와 <화>는 본래 수평적으로 동일한 것인데, 활동하는 사물의 같음이 달리 나타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풀어 말하면 참다운 변화란, <화>(化)란 운동, 활동, 생명활동이란 작위적인 것, 자의적인 것, 옮기는 것, 즉 분열, 분단, 억압, 자기배신, 인공적인 것, 반생명적인 것, 즉 한울님의 근본적인 생명활동의 법칙에 합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 그래서 생명활동을 파괴하는 것, 민중의 생명활동을 죽이는 것, 죽임이 아니고, 무위, 즉 자연적인 생명의 본성을 따르는 것, 본성에 따라 활동하고 변화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위>란 모든 번거로운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 비우는 것, 공(空), 허(虛), 기독교에서 말하는 케노시스(kenosis), 이른바 유대인들이 말하는 사바트, 안식일, 다사

말해 모든 활동정지, 동작정지, 운동정지로서 다 비워버리는 것인데, 또는 보이코트, 스트라이크하는 것인데, 인공적이고 작위적이며 반생명적인 행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텅 비워버린 이 비움이 곧 <화>(化) 즉 참다운 의미에서의 모든 변화, 창조적 생산적인 일체의 활동, 순환활동, 인위적이고 자각적인 활동, 조직적 활동 그 활동 속에서의 공동체적인 생산과 분배, 민중공동체적인, 역사공동체적인, 중생공동체적인 생명공동체적인 참다운 창조적 변화가 이룩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아니다 그렇다>(不然其然)의 반대일치의 생명논리와 같습니다. 활동하는 무, 중심적 전체로서 표현했듯이 비움이 곧 역동이요, 역동이 곧 비움이며, 텅 비움으로써 진정한 생명활동이 생기발랄하게 생동(生動)하고, 신명나게 끊임없이 무궁하게 활동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안식일, 샤바트, 파업, 보이코트, 비움과 이와 동시에 밥을 만들고, 빼앗긴 밥을 되찾아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일하기 위해 힘을 축적하고 함께 나아가 공동체적으로 확대재생산적으로 노동하는 일은 동일한 것이며 동시에 일어나는 한 사건, 한 행동이란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가 '나는 바로 안식일이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했던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밥을, 성당에 놓여진 거룩한 밥을 배고픈 사람에게 먹여주는 밥먹는 안식일, 그런 안식일의 주체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한 것은 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비움과 진정한 생명의 충만은 같은 것입니다. 비움으로써 생명이 활동한다는 것은 생명의 활동이 <필연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연기연(不然其然), 즉 반대일치의 논리로밖에는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중과 중생은 비우며 동시에 창조하고 창조하며 동시에 비웁니다. 이것은 생명의 법칙이며 신진대사이며 노동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밥을 먹는 안식일이며, 생산적 보이코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본성적 활동입니다.

바로 생명활동의 본성이 이러하므로, 이것이 한울님의 활동의 원리이므로, 이같은 필연적인 원리에 합(치)해서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이 (조화정)(造化定)의 <정>(定)의 뜻입니다. 수운 선생은 <정자>(定者)는 <합기덕 정기심야>(合其德 定其心也)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의 <그>(其)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객관적인 조건 속에 있는, 사회·역사

적 조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뒤에 오는 <덕>(德)에 대해 구체성을 부여합니다. <덕>이란 사회·역사적 조건 속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어떤 행동, 활동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생명의 순결한 본성적 활동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합>(合)이란 이같은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생명의 필연적인 본성적 활동에 인위적으로 합치함, 따름, 자각적으로 여기에 순(順)함, 조직적으로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그 덕 즉 무위이화를 생명의 본성적 활동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그에 따라 삶으로서 자기자신을 해방한다는 말입니다. <합>은 일치의 뜻이므로 생명의 법칙성과의 일치, 즉 과학성을 뜻합니다. 생명의 법칙에 대한 진정하고 탁월한 의미에서의 과학적 인식과 과학적 실천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탁월한 의미에서의 과학적 인식과 과학적 실천을 요구하는 수운사상, 동학사상, 생명사상, 생명운동을 신비주의, 낡은 신비주의 따위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오해이며 잘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요컨대 <합기덕>이란 생명활동의 본성적 전개에 그대로 일치하는 것, 적극적으로, 인위적으로 일치해 들어가는 것, 자각적으로 노력해서, 애써 역동적으로 일치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치는 수평적 일치입니다. 어떤 것이 주인이고 어떤 것이 노예인 것이 아니라, 형식논리적 이분법, 수직적 이분법에 의한 지배·종속관계에서의 통합이 아니라 수평적 일치입니다. 자기의 활동을 생명의 본성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수평적으로 일치시키는 일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덕을 이루며 덕을 이룸으로써 도를 깨치는 것, 즉 도덕을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덕은 무위이화의 원리를 말하며, 동시에 크고 광활한 삼라만상에서 여러 경우 온갖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온갖 생명활동과 자연계의 운동 전체, 즉 커다란 활동이란 뜻으로도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덕을 뜻하기도 합니다. 도(道)가 움직이면 덕이요, 움직이는 도가 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에 도가 <체>(體)라면 덕은 <용>(用)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체와 용의 수직적 종속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수평적 동일성, 활동적 동시성 속에 들은 놓여 있습니다. 체는 곧 용이요, 용은 곧 체입니다. 도는 덕으로 나타나고, 나타난 덕, 활동하는 덕이

도입입니다. 도가 따로 있고 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월 선생은 도덕을 가리켜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갈 크고 넓은 길이요 그 모든 목숨을 살리는 활인기(活人機)라고 불렀습니다. 동학에서는 일체 생명활동의 실상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과학적 실천의 성취가 바로 도덕인 것입니다. 이것은 서양의 자연인식, 생명인식인 자연과학, 사회과학과 그 실천인 이데올로기와 물질문명이 모든 사람을 따로 따로 분리시키고 서로 죽이며 민족을 분단시키고 세계와 인류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살인기(殺人機)로 나타난 것과는 의미심장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정기심>(定其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定)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천변만화하는 생명 본성의 활동에 순하고 따르되 생명활동의 필연적 원리를 과학적으로 인식하여 이것과의 일치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심리활동,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는 필연에 따르지 않는 일체의 활동을 그만두어 버림으로써 제자리 생명의 본성적인 마음으로, 고요하면서도 살아 있는 고요, 활동하는 고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은 자기를 비움으로써, 자기의 여러가지 욕망과 욕구 즉 개인적인 혼자 살 궁리, 옮기는 생각, 자기배신, 죽이는 생각 등을 없애버림으로써, 억압활동과 피억압활동 전체를, 죽임의 활동을 중지시킴으로써, 끊어버림으로써, 보이코트함으로써 자기 안에서 본성적인 생명활동이 신선하게 물결치도록 놓아둠, 텅 비게 열어줌, 방하착(放下着), 집착을 버림, 놓아줌으로써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동하게끔 살아 뛰뛰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은 또한 마음과 태도를 분명하게 정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마음을 자유롭고 부드럽게 해방시키는 것, 비움과 멈춤으로 신선하고 싱싱하게 생기가 넘쳐 자유로와지게 하는 것, 그런 쪽으로 태도를 분명히 정하는 것,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뿌리뽑히지 않고 옮겨지지 않는 것, 즉 <불이자>(不移者)에 해당합니다. 그리하여 진리가 절대 파괴당하지 않는 금강불괴(金剛不壞)를 이룸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방과 해탈, 생명의 근원과의 창조적 통일을 성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기심>(定其心)에서의 <기>(其)와 <심>(心)을 생각해

불 차례가 되었습니다. 마음 <심>자의 이 한문 글자는 천변만화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명활동을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유심주의(唯心主義)적 시각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心)은 곧 <물>(物)이요 <물>은 곧 <심>이며 생명에서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다만 <심>, 즉 마음은 끊임없는 변화를 역사적 사회적 현상 쪽보다는 심리적 정신적 측면, 문화적 상황, 주관적, 영적(靈的) 현상 쪽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심>이란 온갖 변화 중에서도 좋았다, 싫었다 하려고 했다가 그만두려 했다, 왔다 갔다 하며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상대연기(相對緣起)를 나타냅니다.

수운 선생은 생명활동을 덕과 심으로 이중 표현했는데, 그것은 이 두 가지가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둘이 한 가지이되 어떤 측면에서는 덕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심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덕과 심 앞에 <그>(其)를 붙입니다. 심 앞의 <그>는 심의 상대연기적 측면을 강조한 것입니다. 원래 삶은 죽음과 맞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삶과 맞서 있습니다. 진정한 삶은 죽음으로서의 삶, 살아 있는 죽이는 자, 살아 있는 억압자의 삶과 맞서 있는 것이지 죽음과 맞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을 결코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산 압제자가 산 사람을 죽입니다. 따라서 삶은 삶과 맞서 있으며 삶은 죽음으로서의 삶, 억압자의 삶, 산 억압자의 죽이는 삶과 맞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당하는 삶, 피살당하는 삶과 맞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순환적인 상대연기로서의 마음의 험떡임은 자기배신의 온상으로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기>(緣起)와 맞서 있으며, 죽음의 장본인인 억압을 산출해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기>(其)는 마음에 있어서의 상대연기성을 가리켜 조건지은 것입니다. 따라서 <합기덕>(合其德)의 <기>(其)가 본성적인 생명활동을 더 많이 강조해서 의미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기심>(定其心)의 <기>는 <정>(定)이 바로잡는다는 뜻이므로 마음의 악순환적인 상대연기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정기심>이란 험떡임을 멈추고 자기를 비우고 놓아버리고 가라앉힘으로써 신선한 새 마음으로, 본성적인 연기(緣起)로써 극대화된 상대연기에 저항한다는 뜻을 갖는 것이라 보아야 마땅합니다.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

서 말하는 환멸연기(還滅緣起)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합기덕 정기심>(合其德 定其心)이란 총체적으로 보아 천변만화하는 민중생명의, 생명활동의 필연적 본성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과학적으로 실천하는 것, 자기를 비우며 비움으로써 생기가 비움의 자유 속을 통과하게 하여 진정한 자기해방을 실현하는 것이며, 동시에 심리적인 악순환의 상대연기를 끊어버리고 그것을 원래의 바른 활동, 바른 연기(緣起)로 고쳐잡는, 그리하여 그 연기(緣起)를 타고 생명의 근원으로의 복귀를 실현하는 것, 민중생명의 신선한 자기복귀의 실현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기심>(定其心)은 요컨대 시천주의 첫 뜻인 <내유신령>(內有神靈)과 연결시켜볼 때, 심리적 조건 속에서 악의 발생을 강조함으로써 심리적 대변혁, 정신혁명, 언어심리적 혁명, 문화적인 혁명이 진정한 생명 본성을 회복하는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결적 문제라는 점을 돋보이게 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永世者 人之平生也

여기에서의 <인>(人), 사람은 개인이면서 또한 인류 전체, 살고 있거나 끊임없이 나고 죽고 죽었다 또 다시 태어나는, 수억 년 전부터 시작하여 수억 년 후까지 이어질지도 모를 생명공동체로서 동일한 집단적 생명주체로서의 전 민중생명 그 자체를 뜻하면서 또한 온갖 중생 전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민중이면서 동시에 중생이요, 중생이면서 동시에 민중입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 생명공동체 전체이면서 또한 구체적 개인이기도 합니다. 이같은 생명의 논리로 볼 때 사람은 우주 전체이며 우주 전체는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평생이란 개인의 전체적 삶이면서 민중의 전체적인 삶, 인류의 전체적 삶이며, 「불연기연」편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중생 전체의 화염적 생존 전체입니다. 보편적 생존 전체입니다. <영세>(永世)의 <영>(永)은 시간의 무한적 지속성을 뜻하며 또한 역사를, 세(世)는 사회와 함께 무한하고 무궁한, 지구와 우주 공간을 통털은 본성적 생명활동의 장(場) 전체를 뜻합니다.

不忘者 存想之意也

잊지 않고 생각을 계속한다는 말입니다. 이때에 잊음은 잊음 자체를 뜻하는 동시에 잊음에서 오는 본성 망각, 망상, 자기상실, 주체상실, 나를 잃어버림으로써 내가 남(他者)으로 뒤집히거나 도구로, 물질로 되어 버리는 것, 또는 아노미 상태와 정체상실을 의미합니다. 죽임의 세력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망상, 억압자에 의해 끝없이 세뇌당하는 데서 오는 극대화된 이원론적인 분별지(分別智)를 말합니다. 마치 총돌 대립, 분열, 분단, 억압, 주인과 노예의 수직적 예속, 종속관계, 피지배관계가 생명 자체의 본성적 활동인 것처럼 세뇌당하고, 그렇게 믿어 행동하고, 따라서 이웃을 증오하고 강자에게는 개처럼 충성하고 끊임없이 동족을 살해하고, 타민족을 억압, 침략, 약탈하고 모든 동식물 풀벌레를 마구 잡아죽이고 파괴하고, 대기와 수질을 오염시켜 공해를 남발하고, 전쟁과 핵을 확산시켜 인류와 생명 전체에 결정적인 종말적 재난을 선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역사발전의 필연적인 법칙인 것처럼 거꾸로 생각하는 남이 된 자기, 소외된 자기, 이것이 <망>(忘)입니다. 이같은 도착, 우치(愚痴), 무명(無明), 정신의 어두움, 눈먼 상태, 아귀와 같은 집착, 큰 것은 다 놓쳐버리고 조그만 자기 이익에 매달리는 것, 물질화되어 남이 된 자기, 남이 만들어 준 자기, 공동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자유롭게 살게 마련된 생명의 본성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빗나가서 자기와 이웃의 생명활동의 본성을 억압하고 증오하고 자르고 쏘시고 갈기갈기 찢어서 죽임, 이 빗나간 삶, 이 죽임당한 삶의 극단을 우리는 <망>이라 부르고 <미칩>이라 부릅니다.

<불망>(不忘)이란 이같은 부정에 대한 부정, 역동적 창조적 부정을 의미합니다. 자기소외, 정체상실이라는 부정을 즐기치게 비판하고 끈질기게 저항하여 생명활동을 그 본성으로 되돌려놓는 것, 진정한 자기회복, 주체회복을 실현하는 것을 <불망>이라 합니다. 이같은 실천을 끝끝내 잊지 않고, 또다시 뒤집히거나 도착되지 않도록, 기만당하지 않도록,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소외당하지 않도록, 죽임당하지 않도록 끝

끝내 노력함, 선방(禪房) 문자로 성성(醒醒)히 깨어 있음, 잠들지 않으려는 끈질긴 노력, 물질화의 타성에 대한 인간정신의 적극적 이니셔티브, 창조적 승리를 성취하려는 즐기찬 혁명적 지향, 이런 것들을 <불망>이라 부릅니다. 또한 이것은 한번 깨달은 것은 끝끝내 놓치지 않겠다는 <돈오점수>(頓悟漸修)와 같은 뜻을 지니며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서 말하는 <환멸연기>(還滅緣起)의 뜻과도 대응됩니다. 그러나 이때의 부정의 부정은 단순한 요소론적인 부정이 아닙니다. 부정을 하나의 요소로, 이에 대한 또 하나의 부정을 또 하나의 요소로 놓고 이 두 개의 요소가 부딪혀서 긍정이 발생하는 그런 요소론적 운동, 알맹이와 알맹이 사이의 충돌이나 또는 조화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잘못 믿어지는 그러한 운동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부정의 부정은 <불연기연>의 창조적 생명논리에 의한 부정, 애당초부터 적극적인 역동적 긍정적 실천으로서의 부정운동입니다.

<존상>(存想)이란 끝없이 되풀이하여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시천주造化정>(侍天主造化定)의 화두(話頭), 영성적이면서 공동체적 생명운동의 화두를 성성히 깨어서 끝끝내 잊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화두를 물고 늘어져 진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즐기치게 실천하면 죽임의 틈, 분단의 틈을 극복하고 생명의 거스름을 끝끝내 거역하여 생명의 본성과의, 큰 생명과의 일치를 성취함으로써 참되고 순결한 생명 활동이 물결치도록 스스로 해방하고 해탈한다는 뜻입니다. <존상지의>(存想之意)의 <지의>(之意)는 그같은 방향으로 집요하게 실천하라는 방향 지시입니다. 가늠잡아줌, 인도함, 지도기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존상지의>(存想之意)의 <지>(之)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지>는 <존상>과 <의>의 어느 것이 다른 것을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동일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인 또는 지도자와 민중의 관계, 보편적 실천 사이의 문제에 대한 어떤 암시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의>(意), 즉 알림, 방향제시의 지식인의 역할은 <존상>, 즉 항상 생각하고 실천하는 민중의 삶을 보자기로 뒤집어 씌워 지배하는 새로운 억압자의 발생과정, 황태자의 발생과정이어서는 안 된다는 암시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지>자가 양자간의 수평적 동일성과 동

시성을, 아우름의 논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보편적 민중의 실천과 지식인의 기능을 화엄적으로 통일시켜 한 방향으로 가늠잡아 잇음과 미침에 저역하여 즐기치게 물고 늘어지는 정진을 계속한다면 모든 것을 깨우쳐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萬事者 數之多也

〈수지다야〉(數之多也)란 수가 많다. 여러 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먼저 〈수〉(數)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의 〈수〉란 온갖 생명, 사물과 사건과 사태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같은 현상적인 모습을 수로써 나타냅니다. 그리고 수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과학적 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 관계법칙을 탐색하여 자연현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수학이요, 수학이 자연과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양에서는 수리철학(數理哲學)으로, 중국에서는 역학(易學)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동양에서는 특히 동학에서는 인간까지도 포함한 일체중생, 일체세계, 일체 우주 자연의 변화하는 현상 전체를 모두 수(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엔 의미심장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애당초부터 하나였던 것을 하나로, 살아 활동하는 통일로서 보는 통일적인 사상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도 동학은 비과학적 신비주의, 추상적 형이상학이 아니며 유사종교적, 흑세 무민적, 망상적 사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속류과학적, 속류유물론적, 자연주의적, 형이하학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둘 사이의 절충이나 요소론을 기초로 한 이러저러한 형식적인 종합도 아닙니다. 동학에서는 과학과 영적인 생명활동을 하나의 통일적 활동으로서 파악합니다. 따라서 〈신〉(神)은 〈기〉(氣)와 수평적으로 하나이며 〈영〉(靈)은 〈화〉(化), 즉 세상만물의 온갖 활동과 변화, 천변만화하는 운동과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신〉과 〈영〉, 〈기〉와 〈화〉, 〈내유〉(內有, 안에 있음)와 〈외유〉(外有, 밖에 있음)가 다 수평적으로 〈일여〉(一如), 하나입니다. 결국 해탈이란 이같은 수, 모든 현상, 모든 구체적인 삶의 전개를 진실대로 여여

(如如)하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탁월한 의미에서의 과학적 완성입니다.

<수지다>(數之多)는 <수>, 즉 현상의 이러저러한 분열적 양상이 <다>(多), 많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수가 많다는 뜻이면서 <수>는 <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다>가 <수>라는 뜻도 됩니다. 이같은 말이 가능한 것은 가운데 들어 있는 <지>(之)자, 갈 <지>자가 상호포섭적으로 <수>와 <다>를 접속시켜 주면서 동시에 수평적 동일성을 갖게 하는 활동적 계사(繼辭)이기 때문입니다. <수>는 <다>요, <다>는 <수>라는 것은 근원적 생명인 기(氣)는 하나인데, 도가(道家)·노장(老莊)에서 말하는 물화(物化), 즉 현상적 전개과정은 <다>(多)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氣)가 전개되는 주체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 <수>라면, <다>는 소여(所與)의 측면, 즉 객관적으로 주어진 변화의 측면에서 파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체적인 전개와 객관적인 주어짐이 생명활동의 양 측면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수>, 즉 사물의 생성과 변화과정 전체, 현실에 있어서의 조직적인 활동, 조직적인 노동과정 전체, 생명의 물질화과정, 창조적 순환의 육화(肉化)과정과 변화과정 등은, 형성(形成)을 주로 해서만 <다>(多)를 보는 것도 일면적인 연역과정인듯이, <다>, 즉 소여, 주관적 활동이 아닌 객관적으로 주어짐, 나타난 결과의 비교·관찰·검증만을 주로 해서 <수>를 일방적으로 보는 일면적인 귀납과정 역시 모두 일면성을 가진 한 조각의 진리만을 가진 근본적인 오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갈 <지>자는 바로 그런 뜻에서 수의 다, 기연(其然), 즉 그렇다이면서도, 수의 다가 아닙니다. 즉 불연(不然), 아니다입니다. 수와 다는 수평적인 한 운동의 연속·확장 활동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갈 <지>자는 민중생명의 자기복귀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민중생명사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다>는 우선 많음, 양(量), 사물의 물량적 측면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양성, 모두 서로 다름, 따로따로 요소적(要素的)인 형태로 나타난 분리된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이질적인 개체현상, 고립된 것처럼 보이는 물질화된 계(系), 즉 시스템의 총체를 말합니다. 시스템의 양적 총체, 양적 집합을 말합니다. 또한 그것

은 이런 여러 분리된 것들 사이의 현상적인 복잡한 관계, 대조, 차별, 차이, 격리, 틈, 충돌, 대립, 양극화; 갈등, 투쟁, 조화, 상호침투, 융합, 용해 등의 복잡한 변화과정 전체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천태만상의 개성적 특수성을 뜻하며 입자운동으로 파악된 사물의 운동 상태, 생명의 종(種), 즉 씨의 다양함, 증생의 다양함을 의미합니다. <만사 즉 수지다>에서의 만사는 이같이 수와 다가 연결된 형성과 소여의 통일상태로 현상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현상 일체를 주관·객관의 통일적 시각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知者 知其道而 受其知也

그러면 <만사지>(萬事知)의 <지>(知)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민중 자신이 이같은 생명 현상의 이러저러한 <수지다>, 즉 현상 일체를 인식하며 그것들을 넘어설 것은 넘어서고 따를 것은 따름으로써 민중 자신을 스스로 참으로 해방하는 그러한 앎입니다. 앎이란 첫째 과학적 인식, 요해, 파악, 이해를 말하면서 동시에 깨우침, 밝게 알아버림, 해탈, 한울님 지혜의 드러남, 진실의 드러남, 도(道)의 드러남, 자유의 성취를 뜻합니다. <지>는 과학적 인식이면서 동시에 전지(全知)와 총지(總知)를 뜻합니다. 분석판단이면서 종합판단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그저 알게 되는 피동적인 인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실천적인 인식과 깨우침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그것은 깨우쳐 앎이며, 몸으로 사는 앎, 곧 앎을 몸으로 사는 그런 앎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지>는 체인(體認), 몸으로 앎, 체현(體現), 즉 몸으로 실천함, 민중적 삶의 지혜, 생존적인 지혜, 살아 있는 지혜를 뜻하는 것으로 체인과 체현은 같은 말이 됩니다. 인식과 실천의 차별이 없는 것, 이른바 선방에서 말하는 칠통이 깨어져 버린 결릴 것 없는 경지입니다. 그리고 개벽(開闢)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부활입니다. 또한 진정한 통일이며 자유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기도이 수기지>(知其道而 受其知)라 하였습니

다. <지기도>의 <도>(道)는 첫째 만사 일체현상의 변화, 움직임, 생성 소멸의 진리 또는 도(道)의 체(體) 등을 모두 지시합니다. 둘째 그것은 독특성과 개성을 지닌 시대와 사회의 특수조건에 맞게 <그> 진리를 깨우쳐 알고 실천함을 말하는데, <그>(其)가 바로 이같은 특수성을 지시하고 조건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기도>란 온갖 사물의 생성변화의 복잡한 복합적 현상의 법칙과 진리, 원리 즉 <도>를 특수조건 속에서 깨우쳐 알고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인간의 주동적(主動的)이고 적극적인 집요한 인식노력과 실천노력의 결과를 말합니다. 인식과 해방과 실천과 완성의 주관능동적(主觀能動的)인 방향의 표현입니다. 주관능동적인 내재적 방향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이>(而)자는 앞서와 똑같이 수평적인 동일성, 동시성을 불연기연의 논리구조 안에서 활동적으로 이어주는 활동적인 계사로서 인간 인식의 내재성(內在性)과 초월성을 동시에 통일시켜 주고 있습니다. <수기지>(受其知)란 앎을 받는다, 진리를 안다는 뜻입니다. 중생이 자기생명의 본성, 자기생명의 자아에로 돌아가려는 집념과 집요한 노력의 결과로 생명의 근원이요 주인인 한울로부터 참다운 인식과 해탈, 전지전능을 받는 것, 초월적인 계시가 드러나는 것, 진리가 스스로 개시(開示)되어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열림과 같은 뜻이며, 개벽입니다. <지기도>가 사물의 본질, 본성을 현상과 더불어 동시에 인식하는 주관능동적인 과학적 내재적 방향이라면 <수기지>는 진리를 한울로부터 초월적으로, 계시적으로 받는 열림이나 개벽과 같은 영성적 초월적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내재적 초월로서의 역사 안에서의 중생 해방, 중생 해탈의 성취입니다.

선불교에서 <줄탁>(睭啄)이라고 말할 때의 <줄탁>과 동일한 것입니다. 줄탁이란 어미닭이 일정한 온도 속에서 병아리가 부화할 때까지 알을 품고 있으면,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태어나 주둥이를 내미는데, 이때 어미닭이 성장에 도달한, 완성에 도달한 병아리가 뚫고나올 방향을 향해서 정확한 시간, 정확한 지점에 부리로 똑 때려 쪼아주는 것, 그래서 병아리가 탄생하는 것, 내외가 동시에 쪼아 하나의 생명이 탄생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而)가 바로 이같은 안과 밖을 동시에 통일적으

로 연결시켜 주는 활동적 계사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요컨대 <지기도이 수기지>는 출타과 같은 생명의 신비로운 활동, 내재적 초월의 동시적 성취, 타류의 역사 안에서의 인간 중생 전체의 해방과 개혁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受)란 받는다는 <수>자입니다. 중생이 중생 속에 살아계신 생명의 주인인 한울로부터, 큰 생명으로부터 전지적인 참다운 앎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한울은 눈도 코도 입도 없는 <무>(無)로서 공(空), 허(虛), 도(道), 또는 무극(無極)과 같은 것으로, 중생의 업력(業力)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집중함으로써만 깨우침을 받는 것이니 이것은 또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수>란 또한 중생이 곧 한울이라는 것을 깨우쳐 아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이 이를 잊어버리고 잘못 생각하고 망상함으로써 빛나가 마침내 자기배반과 자기소외에 빠져버리고 마는데, 이를 거역하여 자신이 한울임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천>(人乃天)사상의 요체요, 중생 부처의 요체이며 예수 곧 하느님의 요체이고, 도(道) 즉 물화(物化)의 요체입니다. 그리고 <지>(知)와 <수>(受)는 수평적으로 동일하며 동시적인 것이라는 것, 둘은 잠정적으로 둘로 나타나는 것일 뿐,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인 것이라는 점에 거듭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울러 어떤 경우 불교에서 보는 것처럼, <지>만을 중심으로, 자력(自力)에 의한 내재적 방향으로만 일면화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기독교나 회교의 어떤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타력(他力) 즉 신(神) 중심으로 초월적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둘은 곧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그자체 <근원적인 것>이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생존>이라는 깨달음에 도달할 때에만 파악될 것입니다. 본래 하나였었다는 점에서 보면 도달이랄 것도 없지만, 인간의 무명(無明), 어두움, 잊음 때문에, 옮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인위적인 인식 노력과 자각적 실천을 통해 그 통일성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여기에서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인간의 의식생활과 과학적 성찰, 그리고 창조적 행위가 중생 속에서

의 진보적 활동이긴 하지만, 중생의 여러 의식활동 중의 한 형태일 뿐이라는 점을 알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인간은 진화하고 진보하지만 중생 속에 살아계신 큰 생명 큰 한울로 볼 때는 타 중생과 다름없는 생명이요 중생 부처일 뿐 그 진보가 다른 생명과 절대적 차이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상대적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란 종(種)의 한 특수한 생존 형태로서 다른 중생이 인간과 다르게 살고 있듯이 중생과 상호연결, 상호작용 속에서 그러나 그 나름으로 독특하게 살고 있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의 의식활동이 중생 전체의 후천개벽을 인위적으로 인식하고 인위적으로 실천하는 조건이 된다는 점에 그 특성과 그 중요성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다른 종을 지배하고 약탈할 만큼 절대적 차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특이함이란 중생계에서의 어떤 한 몫일 뿐 본디 평등한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 생존의 특성이요 제 몫인 인간 의식활동의 결정적인 진보는 모든 중생과의 전일체성(全一體性), 동일성, 통일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한 협동적 생존의 우주적 확장의 그 큰 정도에 의해서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故 明明其德 念念不忘則

우선 여기에서 나오는 <고>(故)는 무엇입니까? <고>는 간단하게 말해서 앞 주문인 <지기금지 원위대강>(至氣今至 願爲大降)이라는 여덟자 주문(呪文)의 활동적 내용으로 적극적, 창조적으로 회귀함을 지시합니다. 이 <고>(故)의 한 마디는 수운 사상의 전체, 즉 생명의 원리는 언제나 확장 반복하며 확장 수렴하며 순환 창조한다는, 끝없이 맞물고 돌아가며 끝없이 생성 소멸하고 끝없이 드러나고 폭발하는 살아 생동하는 역동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암시합니다. 수운의 이 <고>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되돌아가는 살아 생동하는 구조, 확장하면서 동시에 수렴하는 민중생명의 자기복귀활동 구조의 살아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수운에 있어서의 문체(文體)의 구조는 생명의 가장

직접적이고 정직한 상태인 생식구조(生殖構造), 생명의 포태·성장·출산구조(胞胎·成長·出產構造) 또는 개체(個體) 발생이 종(種) 전체 발생을 반복하는 구조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식구조로 일관돼 있는 수운의 문체, 표현방법, 언표방식(言表方式), 끊임 없이 생동하는 생명의 본성에 알맞는 문체의 구성방법과 생각의 가락, 진술방식 등은 비록 그것이 유교 등의 개념들과 한자(漢字)를 빌려 표현되었다는 외면적인 한계는 있으나 우리들이 이제부터 건설해야 할 민중문화운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말, 매체에 있어서의 말의 혁명, 문체혁명, 언어심리혁명이 결정적으로 준거해야 될 기초와 원리 및 미학적 견해 등에 대해 많은 암시를 던져줍니다. 물론 민중에게는 쉬운 말, 쉬운 글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먼저 중생생명을 기초 중심으로 한 민중주체의 살아 있는 문체 혹은 매체가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문체가 생명구조로, 거듭 죽고 살고 퍼지고 모여서 살아 춤추고 창조하는 생물학적 구조로 변형되고 일관되지 않는 한 그것은 반생명구조, 냉동구조, 억압구조, 감금구조, 분단구조, 충돌구조, 그리고 보자기로 뒤집어 씌우는 포섭구조, 지도구조, 계몽구조, 세뇌구조 따위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운 말로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이같은 억압, 감금, 세뇌구조로 되어 있는 매체 구성을 어떻게 타파하며 어떻게 역이용하며 어떻게 산 리듬 위에 띄우며 어떻게 부정적으로 흡수배합하면서 생동하는 생각과 정서를 반복확장, 확장반복하는 생식구조따위 등 살아 생동하는 신선한 생명구조로 회복 변형시키느냐가 될 것입니다. 이같은 문체 및 매체혁명과 더불어 모든 대화구조, 모든 예술과 학문·과학의 연구방법론 구조, 모든 문화구조들이 혁파되고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명명기덕 염염불망즉〉(明明其德 念念不忘則)이란 말은 “밝고 밝은 그 덕을 생각하고 생각해서 잊지 않으면”이란 뜻으로 우선 간단히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명기덕〉이란 말이 갖는 의미의 중층구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명명기덕〉은 우선 〈염염불망〉의 목적어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밝고 밝은 그 덕을 생각하고 생각해서 잊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명명기덕〉은 〈그〉(其)가 붙음으로써 명명덕이 조건지워지고 있습니다. 유학(儒學)에 있어서의 명명덕이면서도 전통적인 명명덕이 아닙니다. 주자주의적(朱子主義的)인 모델과 틀에 고정되어서 석화(石化)돼 굳어져 버린, 또는 중국숭배사상과 연관된 그런 명명덕이 아니라 〈그〉(其)에 의해 조건지워진, 각 나라, 각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수조건을 통해 본 명명덕, 즉 우리의 경우엔 우리 민족의 구체적인 특수조건 속에서, 우리 민족의 그것 속에서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명명덕입니다. 여기에서의 명명덕이 보편적인 생명활동의 양상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의 특수조건 속에서 보편적인 생명의 본성적 활동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명기덕은 또한 〈그〉 덕을 밝히고 밝힌다는 적극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밝히고 밝힌다는 명명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여진 것으로, 이 때의 밝힘은 단순한 밝힘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철저히 밝힘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명명은 논학문 해설 속의 다음에 이어지는 말, 즉 〈지화지기 지어지성〉(至化至氣 至於至聖)의 〈지〉(至)자, 결정적인 변화, 근원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이를 〈지〉, 지극할 〈지〉자와의 연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인식행위요 ‘삶으로서의 삶’ ‘삶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과학적인 인식이요 공부이며 동시에 기도요 수양이며 체인(體認)입니다. 또한 그것은 중국 등 외래사상 따위를 그대로 흉내내는 공부가 아니라 우리민족과 민중의 사회역사적 특수조건 속에서의 보편진리의 밝힘이요 깨우침입니다. 동경대전, 수덕문(修德文) 가운데 일반민중이 동학 공부를 하자마자 “일자무식 나뭇꾼이 왕휘지 뺨치게 글씨를 쓰고 석숭(石崇)의 재물과 사광(師曠)의 총명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은 당시 민중들 속에 중국 문물과 귀족문화에의 종속을 청산하는 민족주체, 민중주체적인 문화혁명, 정신혁명, 언어심리혁명이 일어났던 실제의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이같은 수운의 논리구조, 즉 보편과 특수, 특수와 보편을 분별하면서도 그것을 근원적인 통일성 속에서 파악하는, 즉 불연기연, 반대일치의 논리 속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생동하는 수운의 논리구조는 앞

으로 우리들의 새로운 민주주체의 민족문화건설과 예술건설, 생동하는 새로운 세계건설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죽임에 반대하는 저항의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도 풍부한 암시와 가르침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사상도 역시 하나의 생명활동입니다. 사상을 일상적 생명활동과 분리시켜 별개로 보거나 사상만이 생명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 모두가 다 오류입니다. 인간의 정신적 활동, 사상활동은 물질적 육체적 활동, 개인적 사회적 활동, 민중활동, 중생활동과 더불어 모두 생명활동인 것입니다.

<염염불망즉>(念念不忘則)이란 무엇일까요? <생각하고 생각해서 잊지 않으면>이란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염염>은 오매불망과 같이 성성(醒醒)하게 환히, 늘 맑게 개어 있는 정신으로 모두들 끝끝내 의심하여 물고 늘어지는 줄기차고 끈덕진 화두집착(話頭執着)이며 무문관정진(無門關精進)입니다. 염염을 두개로 겹쳐놓은 것은 반복 확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집요하고 끈덕진 인식과 실천을 반복확장적으로 수행하라는 지시임을 예리하게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생각함은 선(禪)의 수행, 개인적 집단적인 선의 수행이며 또한 끈질긴 조직 실천입니다. 백척간두에서 이미 인간의 힘을 넘어섬 같은, 초인적인, 무문관정진 같은 집요한 인식과 실천, 적극적이고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인식과 실천입니다. <불망>(不忘)은 잊지 않음, 잊음을 거역함, 잘못됨을 부정함, 잘못됨에의 저항을 뜻합니다. 그것은 인위적 죽임에 대한 인위적 살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정의 부정이라는 소극적인 비판이면서, 저항이요 버림이요 비움이면서 동시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창조적 인식이며 실천활동으로서의 큰 살림, 곧 활인(活人)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부정 및 저항과 함께 오히려 그에 앞서서, 오히려 그것까지 내포하면서 보다 더 크고 넓은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인식과 실천을 통해서만 진정한 생명의 본성에 합하는 진정한 해방과 해탈을 성취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최해월(崔海月) 선생 같은 분들의 40년 간에 걸친 포덕활동, 그 험난한 지하조직 활동은 이러한 염염불망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철저하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면서 조직적인 실천으로서만 비로소 지극한 민중의 사회적 성화,

인내천 혁명의 개벽적 성취에 이를 것입니다.

至化至氣 至於至聖

이 말은 생각하고 생각해서 잊지 않으면 <지기>(至氣)에로 홀연 변모하여 <지극한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곧 인간, 민중, 중생의 집단적 사회적 성화올시다. 여기 <지화지기>에서의 <지>(至)는 지극한 단계, 극치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의 층만, 선불교에서의 몰락, 홀연에 해당됩니다. 절정, 비등점, 포화상태, 페이야르 드 샤르댕의 이른바 크리티컬 포인트(critical point), 또는 오메가 포인트(omega point), 또는 질적 비약 등의 말과 비슷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지 않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더 광활하면서도 더 일상적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텅비운다는 뜻에서의 무화점(無化點)이기도 합니다. 포화점은 무화점이며 무화점은 곧 지화점(至化點)입니다. 지극한 단계에 이르러 변화, 즉 메타모퍼시스(metamorphosis)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극한 변화 즉 <지화>는 개벽이며 부활입니다.

<지기>(至氣), 지극한 <기>(氣)란 근원적 생명, 살아 생동하되 고요한 생명의 산 실체, 산 부처요, 산 한울님이요, 산 도(道)요, 산 영(靈)이요, 산 에네르기 등으로 표현되어 온 생명의 실체입니다. <지화지기>는 그러므로 민중과 중생 속에 살아계신 생명이 민중과 중생의 줄기찬 생명운동을 통해서 중생 속에 드러남, 열림, 즉 생명이 스스로 생명이 이르름, 생명이 스스로 생명답게 자기자신의 주체에 돌아감, 자아로의 단순반복이 아니라 극히 창조적으로 돌아감입니다. 즉 귀향이며 통일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해방이며 자유이며 해탈이며 개벽입니다. 뭐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민중생명의 자아회복이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중생의 집중적인 실천이 극에 이르러 <지기>(至氣)가 <화>(化) 속에 드러남, 역사적 활동, 노동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그 변화를 초월하는 결정적이고 비약적 변화가 이루어짐 즉 변모를 말합니다.

<지어지성>(至於至聖)이란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 지극한 거룩함에

이른다>란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어>(於)는 <화>(化)에 대응하는 말이
올시다. <지화지기>의 <화>(化)에 대응하여 <지어지성>의 <어>(於)라는
경지, 또는 장소를 나타내는 어조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화>가 설
새없이 천변만화하고 구체적 현실적 물질적으로, 공동체적, 협동적으
로 창조하고 생식하고 생산하는 창조활동, 노동활동이며 순환활동임에
대응하는 역사적 시간의 뜻을 갖는 데 비해서 <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고정적이고 추상적이며 정신적이고 영적인 단독자적인 해방과 해탈의
어떤 경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해탈, 부활, 완성 그
리고 성화(聖化)의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집단적인 영성공동체(靈性共同體), 해방된 자들의 공동체를 연상하도록
가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어>(於) 역시 <지>(至)와
<지>(至) 사이에서 역동적인 계사(繼辭) 역할을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고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것의 복합의미, 생동하는 고요, 활동
하는 <무>(無)의 경지를 뜻합니다. <지화지성>은 요컨대 지극한 거룩함,
거룩한 변모, 해탈, 부활의 완성이면서 동시에 전사회적이고 전지구적
인, 전인류, 전종생, 전우주적인 생명공동체의 해탈이며 무궁확장의 완
성이며 한울의 성취이며 후천개벽의 성취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맞물
고 돌아가는 변화의 극에서 마침내 사람(人)이 한울(天)이 되는 것, 민
중이 종생과 함께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사회적 성화를 문득 성취하
는 것, 한울이 사람 속에 개화만발(開花萬發)하는 것을 가리켜 최수운
선생은 <만년 나무에 천 떨기 꽃이 활짝 피어나는 만세춘(萬歲春)>이라
하였습니다. 영원한 봄의 성취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최수운 선생의 인내천사상이 압축되어 있는 본주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의 13
자를 하나하나 음미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13자의 본주문 속에 참다
운 민중적 생명해방사상이 훌륭하고도 탁월하게 압축되어 있음을 거듭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수운의 사상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전개해야 할 민족통일운동과 민중해방운동을 위한 전세계 인류와 전종
생계의 참다운 평화를 위한 귀중한 진로의 열쇠를 얻어낼 수 있음을 다

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팽팽히 맞서 싸우는 두 개의 극단적 몰신숭배, 그 공룡들의 지배 아래 끝간 데 없이 분열되고 부패한 이 세계에서 제3세계 민중 중심의 새로운 세계문화와, 새로운 세계문화의 건설과정에서 우리가 치러내야 할 가장 중요한 세계관의 변경을 위한 귀중한 토대를 동학사상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중주체적 인 후천개벽적 세계관을 건설하기 위한 민중이 자신을 해방하는 데 있어 부딪치게 되는 온갖 형태의 압제, 약탈, 분단, 세뇌, 공해, 전쟁, 일체의 생명파괴 등 죽임의 세력에 맞서, 옴김에 맞서 그것을 극복하여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들의 방향과 방법의 바탕 및 그 밑천을 동학사상 속에 압축되어 있는 우리 민중자신의 생명의 세계관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사상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상이 주문과 영부(靈符) 속에, 『동경대전』 속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동학의 실천활동 전체 속에, 해월 최시형 선생의 40년에 걸친 지하조직활동 속에, 모든 민중의 고난에 찬 삶 속에, 갑오동학농민혁명과 그 이후 줄기차게 지속되어온 반외세 민족해방운동 속에, 그리고 줄기차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온 민중운동 속에 살아 뛰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이 한울>이라는 사상일 것입니다. 민중자신의 <원인내천사상>(原人乃天思想)일 것입니다. 인간을 천하게 만드는 온갖 옴김과 죽임에 맞서 인간을 무한히 거룩하게 드높이는 인간의 사회적 성화의 실천이 그것입니다. 민중자신에 의한 인간의 사회적 성화의 실천이라는 원사상(原思想)의 살아 뛰뛰는 생명 없이는, 민중심장의 고통 없이는 어떠한 경전도 헛소리입니다. 지렁이만도 못하게 천하게 죽임당하는 사람의 삶을 한울로 드높이는 민중주체의 인내천혁명, 민중주체의 생명운동, 참삶의 실천 자체가 바로 동학의 최수운 선생의 기본사상입니다. 바로 그것이 민중 주체의 민족통일운동의 기본사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사회적 성화, 민중주체의 자각적이고 조직적인 인내천혁명, 그 생명운동의 줄기찬 실천을 통해서 우리 민족과 민중자신만이 아니라 온 인류와 중생의 해방도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